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발돋움

순창군, 사업비 6억원 투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아동 복지증진 동분서주



순창군이 내년도 예산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사업비로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황숙주 군수가 지난 어린이날 어린이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이 추진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성과를 내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군은 내년도 예산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사업비로 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아이들의 건전 생활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사업은 장난감 도서관이다.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다양한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다.

4억 3000만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로 올 연말 준공해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눈여겨 볼 사업이다. 군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2,500만원을 투자해 친환경 쌀을 보급한다. 또 3~5세 누리과정 아동들에게는 실내에서 느낄 수 없는 이를 모를 풀도 접하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모든 어린이 집 보육교사에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고,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에는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된다. 민간 가정어린이 집의 보육교사나 취사원에게는 일부 인건비도 지원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여기에 지원된 사업비는 어린이집 차량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를 포함해 8500만원이다.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오락 및 놀이들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 관리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센터운영

중사에게는 월10만원의 복지수당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급식도우미도 파견한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은 총 4,400만원이다.

황숙주 군수는 "내년에는 순창의 미래인 어린이와 아동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 젊은 여성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임실군, 하반기 수도시설 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이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신뢰받는 급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수도시설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민간전문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정수처리시설 2개소와 배수지 13개소, 가압시설 27개소 등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관리계획도 논의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수처리시설 공정별 시설물의 관리상태 살피 및 배관 등의 부식 여부와 화재대비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이다.

여기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며, 외부에 노출된 시설물인 급수구역별 배수지 및 가압시설에 대한 점검작업도 이뤄졌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풍에 의한 파손 및 호우시 배수 대책, 보안설비 정상적인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수질사고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매뉴얼 정비상태와 기기의 고장이나 약품누설 예방 및 경보설비, 배수설비 등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에서 콘크리트 벽체오염 및 구조물 바다 물고임 등이 확인됐으나,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외에 안전성 문제가 될 만한 구조물들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과 노후시설 및 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수시 점검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내년 2월28일 ~ 3월3일 접수

남원시가 제21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을 개최한다.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덕경)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목공예라는 단일 소재를 대상으로 한 전국 유일의 대전으로, 옷칠 목공예품의 대중화와 기술발전을 목표로 한다. 접수품목은 옷칠, 기타 오일 등으로 마감한 모든 목제품을 대상으로 옷칠 목공예부문과 같이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작품접수는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남원시청 강당 및 남원시 서우사무소(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접수하며, 전문가단과 일반인단의 심사를 거쳐 3월 8일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상장과 총1억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서울 인사동(KCDF 갤러리) 및 삼성동 코엑스, 남원시 일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및 목기사업협동조합(☎626-9909)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도시생활 지친 시민들 순창 찾는다

건강장수연구소, 올해 4500명 교육생 방문... 치유·힐링 인기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한 밥상'과 바른먹거리 당뇨학교 등 힐링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총 4,500여명의 교육생이 건강장수 연구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건강장수 연구소는 노후준비 교육으로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었고 최근에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인 'The 건강한 밥상', '바른먹거리 당뇨 학교' 등 다양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순창의 청정자연과 건강한 먹거리를 테마로한 교육이 도시민들에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장수연구소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치유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쉼랜드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앞으로 방문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쉼랜드(SHLL)는 Sunchang Health Institute Longevity의 약자다. 당뇨 환자나 노인,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이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방갈로, 명상관, 공원, 스파시설, 치유센터 등 치유교육이 병행되는 신개념 휴양 관광지다. 2019년까지 96억원을 투자해 다양한 치유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목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이 치유와 관광이 결합된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강을 위한 힐링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동

남원시(이환주 시장)가 예가림길 일원 우수한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주민의 소득창출 도모를 위해 추진중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담금질에 들어갔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예가림길 골목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예가림길 골목경제 주민협의체'를 공식 발족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골목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공간 관(행정)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하고 자생력 있는 골목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총 10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으로, 남

원시에서는 예가림길 일원의 우수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올 6월말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골목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소득창출 모델 개발을 사업의 핵심 목표로 설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예가림길 골목상인들과 수시로 소통, 교감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분야별(SW/HW)로 기본 방향을 설정한 후, 내년말까지 분야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매아리

임실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임실군은 22일 종합상황실에서 지방세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지방세의 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마련,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실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2017년 징수목표액과 징수현황, 개별적 체납원인, 징수의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70%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방세소득세에 대한 중점 관리대책이 논의됐다.

군은 읍면사무소와 함께 합동징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가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질적인 징수대책도 마련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물론 압류재산 공개, 각종 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과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그러나 경기불황 등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큰 주민들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 등을 고려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비위생 식품조리환경 근절 앞장

임실군 합동점검반 집중 점검

임실군은 휴게음식점의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환경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과 합동점검반 2개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내 휴게음식점 58개소의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생적인 환경시설기준 위반여부, 무표시 제품 취급·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행위, 표시기준 준수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조리음식물 보관상태,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의 안정적인 조리판매를 위한 사항을 면밀히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식중독예방 및 친절한 손님맞이 등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교육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적발될 경우 현지시정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  |
|--|--|
|  |  |
|  |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